

# 북한문학사의 고전문학 서술 양상\*

안 영 훈\*\*

##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조선문학사』의 구성 체계 |
| II. 『주체문학론』의 고전문학유산에 대한 시각 | 2. 고전문학 서술 양상의 특징 |
| III. 『조선문학사』의 고전문학 서술 양상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이 글은 최근 북한의 문학사에서 민족 공통의 유산인 고전문학에 대한 서술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흔히 북한문학연구라고 하면 분단 이후의 북한문학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고전문학 유산의 경우는 대상 자체가 남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문학 연구가 지향할 바는 서로가 다르다는 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03AA004) 이 논문은 한국문학회 2001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1990년대 북한의 고전문학사 서술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점으로 점차 옮겨가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같은 대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민족 공동의 유산인 고전문학 연구에서 남북이 함께 하는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것이 이 글의 최대 기대치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아서는 같은 작품을 향유하며 함께 토론을 벌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각의 차이가 엄존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고전도 시대가 달라지면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지게 마련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주창한 지침들이 고전문학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주체문학론』으로 표면화된 ‘주체문학론’은 기존의 ‘주체적 문예이론’에 토대를 두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체사실주의’로 대체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문학’ 등을 강조하면서, 과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중세·근대문학의 주요 인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먼저 『주체문학론』에서 피력한 고전문학 내지는 고전문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최근에 나온 1990년대 판 『조선문학사』(사회과학출판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 나타난 고전문학 서술의 특징적인 양상<sup>1)</sup>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선문학사』를 비롯한 북한의 연구 저작에서 고전시가, 민요, 고전소설 등 특정 갈래에 대한 서술 양상을 검토한 경우<sup>2)</sup>는 있어도 최근 북한문학사의 고전문학 서술 양상 전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우선 개괄적인 고찰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 1) 『조선문학사』총 15권 중 1~6권이 고전문학 시기에 해당하나 제6권(19세기)을 구할 수 없어 여기서는 제5권(18세기)까지만 다룬다.
  - 2) 최두식, 「고려시가연구의 남북한 비교 고찰」(『국어국문학』~119, 국어국문학회, 1997), 임완혁, 「‘역용패설류 양식’에 대한 북한에서의 연구 동향-북한의 문학사를 중심으로-」(『대동한문학』 제12집, 대동한문학회, 2000), 장효현, 「남북한 고전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등.

## II. 『주체문학론』의 고전문화유산에 대한 시각

최근 북한은 탈이념시대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을 종전보다 더욱 견고한 내부적 통합을 이루어내면서 이를 토대로 외부적 개방을 모색해왔다. 북한은 1990년에 “우리 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전국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아울러 1986년 김정일이 제기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한다. 동명왕릉 복원공사(1993), 단군왕검릉 개건(1994) 등의 일련의 작업은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민족 자주성의 신화를 건설하려는 지배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의 대외적 개방과 개혁을 통한 경제 원조와 교류 역시 궁극적으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대내적 통합을 용이하게 이루기 위한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sup>3)</sup>

이와 같은 북한의 폐쇄적인 민족적 자주성의 강화와 비교적 유연한 대외적 개방과 개혁의 모색이라는 지배전략의 이중성은 당대 문예정책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폐쇄적인 민족적 자주성의 강화는 문학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 서술 대상의 ‘열립’ 또는 ‘확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북한의 문예정책이 취해야 할 이념과 방법을 제시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총 7장<sup>4)</sup>)의 구성 중에서 두 번째 장 ‘유산과 전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1) 유산이 있고 전통이 있다, 2)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3)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주체적 립장에서 바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세 항목에 나누어 ‘유산과 전통’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김정일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해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라고 개념 규정을 한 후, 다시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두기만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그 첫 번째 것이 ‘전통’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

3) 홍용희,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화성』(김재홍·홍용희 편, 『그날이 오늘이라면』, 청동거울, 1999), 381~382쪽 참조.

4) 1. 시대와 문예관 2. 유산과 전통 3. 세계관과 창작방법 4.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 5. 생활과 형상 6. 문학형태와 창작실천 7. 당의 령도와 문학사업(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적문화유산도 있고 그 이전 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이 있는데, 고전문화유산만 민족문화유산에 넣는다든지 또는 혁명적문화유산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민족문화유산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그리하여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어디까지나 ‘유산’의 일부이면서 ‘전통’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옳은 전통’으로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유산’에 귀속시킴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6)</sup>

김정일은 이어서 민족고전문학예술유산 가운데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sup>7)</sup>시킬 것을 강조하고, ‘복고주의’적 태도나 ‘민족허무주의’ 또는 ‘구라파중심주의’적 편향에 대해 경계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날 문학예술부문의 일부 사람들은 복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학파나 《카프》문학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고전문학예술유산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고전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연구와 출판보급사업까지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하여 한때 일부 문예학자들은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문학예술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문학사와 예술사나 출판보도물에서 고전문학예술작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의 긍정적측면은 간단히 언급하고 부정적측면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많이 언급하였다. 고전문학예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바에야 구태여 문학사와 예술사나 출판보도물에서 민족문학예술을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주아사상을 반대한다고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나라의 문화예술력사와 민족고전작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나라 력사에 어떤 고전작품이 있었는지 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게 된다. 우리는 민족허무주의적경향에 대하여 제때에 타격을 주고 민족고전문학예술을 주체적 립장에서 공정하

5) 위의 책, 59~60쪽.

6) 위의 책, 58~59쪽. ‘유산’의 재평가와 계승 문제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통일열망을 안겨”주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남북관계에서 문화적 헤게모니 장악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

7) 위의 책, 73쪽.

게 평가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sup>8)</sup>

여기에서 과거 문학사 서술이나 출판사업의 협애한 시각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이전에 비해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비록 그것이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폐쇄적 민족적 자주성의 강화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고전문학유산에 대한 시각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변화의 양상으로 지목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실학과문학(특히 박연암·정다산), 민요, 시조형식, 궁중예술<sup>9)</sup> 등을 꼽고, “최치원, 리규보, 김시습, 정철, 허균, 김만중을 비롯하여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의 이름있는 작가, 예술인들과 그들의 우수한 작품과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을 비롯하여 작가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많이 찾아내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sup>10)</sup>고 언급하고 있다.

『주체문학론』의 전체 구성 내용이 과연 과거의 문예이론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고 ‘전향적’으로 바뀌었느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유보할 수 밖에 없지만, 일단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시각만큼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조선문학사』의 고전문학 서술 양상

#### 1. 『조선문학사』의 구성 체계

1990년대 북한의 문예정책 지침서인 『주체문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고전문학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전보다 유연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의 변화는 문학사 기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북한 학계의 현실이다. 또 우리가 구체적인 남북한의 연구 시각과 성과를 비교해볼 수

8) 위의 책, 74~75쪽.

9) 궁중 음악·무용의 가락도 그 원천은 인민 음악과 무용의 가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책, 89쪽.

10) 위의 책, 86쪽. 근현대문학의 주요한 재평가 대상으로는 카프문학을 비롯하여, 이인직, 이광수, 최남선, 김소월, 신채호, 한용운, 김억, 정지용, 심훈, 이효석, 방정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있는 것은 결국은 문학사 서술 문면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1990년대 판 『조선문학사』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문학사의 고전문학 서술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서는 짧은 지면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종전 북한문학사에 대한 해당 논의는 기존의 성과<sup>11)</sup>에 미루기로 하고, 『조선문학사』~중에서도 고전문학 서술 양상에 국한하여, 종전과 달라진 점을 개관하기로 한다.

북한의 문학사는 일차적으로 당의 문예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서술 속에서 해설하고 선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주체문학론』의 시각이 『조선문학사』에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고전문학유산에 대한 변화된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현 양상을 찾아보기로 한다.

『조선문학사』는 머리말에서 ① ‘주체성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② ‘조선문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게 시기구분과 서술체계를 세우며’ ③ ‘새로 발굴수집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작품들을 문학사의 응당한 위치에 올려세우고’ ④ ‘매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역사적공적과 제한성을 올바르게 천명하는 데 힘을 넣었다’고 서술원칙을 밝히고 있다. 서술원칙만 보면 ‘신간’<sup>13)</sup>은 ‘77년판’이 내세운 ‘주체의 방법론’을 계승하고 있으나 ③④의 강조점에서 서술 대상과 평가의 변화를

11) 77년판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비평사, 1991)에서 자세한 분석을 펼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고려원, 1990), 황패강, 『남북문학사의 과제』(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실제,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김대행, 『북한의 문학사 연구-문학의 역사를 보는 시각』(『시와 문학의 탐구, 역락, 1999), 이복규, 『북한의 문학사 서술 양상』(『국제어문』9·10합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89), 이강욱, 『북한문학사의 실증적 오류 및 문제점 검토』(『한길문학』통권4호, 1990. 8), 김승찬, 『조선족의 우리 고전문학사 기술태도와 그 비판』(『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조동일,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등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12) 민족문학사연구소, 앞의 책, 94쪽.

13) 편의상 종전 문학사와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문학사』는 ‘신간’으로, 77년판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은 ‘77년판’으로 약칭한다.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고전문화유산에 대한 시각 변화가 문학사 서술의 주요 과제로 등장함을 의미하는데, 머리말의 또 다른 구절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전면적 수집 정리’라는 한층 강화된 어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머리말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주체문학론』 등에서 직접 인용한 이른바 김정일의 교시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문학연구서 내지는 문학사 서술에 공통되는 특징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방식은 ‘주석적(註釋的) 서술’이라 명명할 수 있다. 문학사의 각 장이나 항의 첫머리에 해당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시를 앞세운 것은, 마치 유가 경전(經傳)의 주소(註疏)처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어록·저작이 경문(經文)이 되고 그것을 풀어쓰는 것이 문학사 서술인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문학사 서술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념적 주관성’과 ‘자료적 객관성’의 거리를 그대로 느끼게 한다.

『조선문학사』의 구성 체계는 차례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권별 장제목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제1권】 원시~9세기 제1장 조선문학의 시초
  - 제2장 고대문학
  - 제3장 삼국시기 문학
  - 제4장 발해 및 후기신라 시기 문학
- 【제2권】 10~14세기 제1장 고려시기 문학발전의 사회력사적 및 문화적 배경
  - 제2장 고려시기 인민창작과 그 유산
  - 제3장 고려시기 향가의 쇠퇴와 시조의 발생
  - 제4장 고려국어가요와 경기체가요
  - 제5장 고려시기 한자시문학의 획기적 발전
  - 제6장 리규보와 사실주의적 경향의 시문학
  - 제7장 문화유산의 수집과 정리, 산문문학의 다양한 발전
- 【제3권】 15~16세기 제1장 15~16세기 문학의 사회문화적환경과 문학발전의 두 단계
  - 제2장 인민창작의 자취
  - 제3장 국문시가의 획기적발전
  - 제4장 한자시의 활발한 창작과 사회비판적 경향의 강화

	제5장 패설의 성행과 그 분화발전
	제6장 김시습의 창작과 단편소설집 <금오신화>
	제7장 립제의 창작과 우화소설의 발전
	제8장 정철의 창작과 가사발전의 새 경지
	제9장 임진조국전쟁에서의 거족적 투쟁을 반영한 참전자들의 애국적 문학
<b>【제4권】 17세기</b>	제1장 사회문화적환경과 문학개관
	제2장 시문학
	제3장 박인로의 창작과 <로계가사>
	제4장 권필의 창작과 현실비판의 시
	제5장 윤선도의 창작과 <어부사시사>
	제6장 소설문학
	제7장 허균의 소설창작과 <홍길동전>
	제8장 김만중과 국문장편소설
<b>【제5권】 18세기</b>	제1장 18세기 문학의 사회문화적환경
	제2장 평민들의 창작적 진출과 국문시가의 새로 운 발전
	제3장 평민시인들의 한자시문학
	제4장 소설의 다양한 발전
	제5장 구전설화에 토대한 국문소설
	제6장 봉건사회의 악덕을 풍자한 우화소설
	제7장 <춘향전>
	제8장 실학과문학
	제9장 연암 박지원(1737~1805)

『조선문학사』는 시대구분 방식에서, 고대와 중세의 기점을 각각 고조선과 고구려로, 근대의 기점을 19세기말로 잡고, 다시 원시~9세기, 10~14세기, 15~16세기, 17세기, 18세기 등 세기로 획기한 점은 종전과 대차가 없다. 그러나 ‘원시~9세기’와 ‘10~14세기’에서 장 제목을 ‘삼국시기 문학’, ‘발해 및 후기신라 문학’, ‘고려시기 문학’으로 명명한 점, ‘고려시기 문학’을 전후로 나누지 않고 한 시대로 서술한 점<sup>14)</sup>은 ‘77년판’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발해 및 후기신라 문학’, ‘고려시기 문학’이라고 명명하여 부각한 것은 고구려중심주의<sup>15)</sup>에 기반을

14) 이러한 점은 ‘신간1·2’(원시~14세기)의 집필자 정홍교가 고대중세부분을 집필한 『조선문학개관1』(정홍교·박종원, 사회과학출판사, 1986)에서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조선문학개관1』의 세부 항목은 ‘77년판’과 거의 동일하다.

15) 민족문학사연구소, 앞의 책, 95쪽에서 이전부터 발해를 부각한 것을 고구려중심

둔 것으로, 기실 문화적 헤게모니 장악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문학사』는 각 시기의 서두에 역사학계의 성과를 수용하여 장황한 시대 개관(‘사회문화적환경’)을 둔 뒤, 해당 시기 문학의 흐름과 대표작품들을 거명하고, 새롭게 등장한 갈래에는 주된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그 다음에는 개별 작가와 작품의 소개, 분석으로 서술을 진행시키고 있다.

각 시기의 문학 갈래를 인민구전문학, 국문시가, 한자시문학, 산문문학 순으로 배치하면서 ‘인민적인’ 문학을 최우선시하는 관점은 종전의 문학사와 다를바 없다. 북한문학사에 나타난 문학 갈래는 우선 구전문학과 서사문학으로 대별된다. 남한으로 친다면 이것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에 해당한다. 인민구전문학을 앞세우는 것은 계급의식의 소산이다.

북한문학사에서 ‘한문학’이라는 용어는 직접 쓰고 있지 않으나 서사(기록)문학의 범주 안에서 한자시문학, 산문문학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조선문학사』에서는 국문시가, 국문소설 등의 명칭을 빈번하게 대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문학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설정이나 설명은 없지만 나름의 구별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에 있어서도 이른바 ‘애국적’, ‘비판적’인 한문학 작가 작품에 대한 서술이 대폭 확장되어 있다.

## 2. 고전문학 서술 양상의 특징

『조선문학사』의 서술 양상을 ‘77년판’과 대비해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서술량의 대폭 확장과 더불어 서술 항목이 세분되었다는 점이다. 항목의 세분화는 ‘삼국시기 문학’ 이후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몇 가지 예만 보인다.

'77년판'	'신간'
제3장 1~7세기전반기 문학 제2절 설화의 활발한 창작과 구 전가요의 발전 설화의 활발한 창작	제3장 삼국시기 문학 제3절 구전설화의 활발한 창작 1. 건국설화와 대표적인 설화유산 2. 애국적 주제의 설화와 대표적인 작품들 3. 인정세태와 미풍양속을 보여주는 설화의 대표적인 작품들 4. 환상과 의인화의 수법에 기초한 설화, 동 화와 우화
제6장 12세기후반기~14세기 문학 제2절 구전문학의 활발한 창작 고려국어가요의 창작과 보급	제2권 고려시기 문학 제4장 고려국어가요와 경기체가요 제1절 고려국어가요의 개념과 발생년대 제2절 고려국어가요의 창조과정과 형태적 특성 제3절 고려국어가요의 주제사상적 유형과 특성 제4절 고려국어가요의 대표적 작품들 제5절 경기체가요의 형태적 특성과 계승관계 제6절 <한림별곡>의 창작과정과 경기체가 요의 서사화 과정
제7장 15~16세기 문학 제5절 국문시가의 활발한 창작 시조의 활발한 창작 가사의 발생발전과 정철의 가 사 <관동별곡>	제3권 15~16세기 제3장 국문시가의 획기적발전 1. 국문시가발전의 사회문화적요인 2. 현실미화의 송시체시가 3. 리조초기의 정치적사변을 반영한 시조 4. 정극인의 <상춘곡>과 <가사>형식의 발생 5. 15세기 후반기~16세기 국문시가의 사조들 제8장 정철의 창작과 가사발전의 새 경지 1. 부침잡은 정계생활과 창작 2. <송강가사>의 가사작품 3. 송강의 시조 4. 송강의 한자시

위에 든 삼국시대 설화, 고려가요, 조선전기 시가에 대한 서술은, '77년판'에 서는 각기 한 두 항목에서 뭉뚱그려 서술하던 것인데, 여기서는 대체로 세 가지 방식, 즉 기존의 내용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거나, 나름대로 새롭게

체계를 세워 서술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편입하여 항목을 설정하고 주요 작가는 아예 독립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화나 고려가요<sup>16)</sup> 같은 한 갈래에 속한 작품들의 다양한 유형이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송강 정철의 경우처럼 동일 작가·작품일지라도 이전보다 풍부한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sup>17)</sup>

정철 외에 개별적인 장으로 다룬 작가로는 이규보, 김시습, 임제, 박인로, 권필, 윤선도, 허균, 김만중, 박지원 등이 있고, 최치원, 이재현, 서거정, 성현, 어숙권 등도 소항목으로 독립하여 다루었다.

『조선문학사』에서는 새로운 항목의 편입도 눈에 띄는데, ‘현실미화의 송시체가 시가’ 곧 악장을 다루고 ‘반동문예사조’<sup>18)</sup>라고 하여 문학사 서술에서 비판·배제되었다가 독립 항목으로 ‘은일시가(강호시가)’를 ‘복권’시키기도 했다. ‘은일시가’의 재평가 사례를 통해, 그간 문학사에서 군데군데 공백으로 두었던 부분들이 다소나마 서술 문맥에 복원되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주제사상’이라는 내용 일련도의 평가에서 갈래와 작품의 형식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향가, 시조, 가사 등 시가 부분에서 두드러지며, 산문 작품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김정일의 직접적 교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그리고 자료의 발굴과 정리 작업의 결실로 보이는 문헌고찰(특히 고소설<sup>20)</sup>)이 부기되고 있는 점도 진전된 국면이다.

북한문학사는 일관되게 계급성과 인민성의 원칙에서 매 시기마다 ‘인민구전문학’을 앞세우고 사대부계층의 ‘서사(기록)문학’ 곧 한문학을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왔다. 『조선문학사』 또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고려국어가요’ 서술에 대해서는 최두식, 앞의 논문에서 문제점 중심으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17) 이러한 문학사 서술의 바탕에는 100권이 넘게 진행중인 『조선고전문학선집』·『류의 출판사업과 『고려시가유산연구』(정홍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조선고전소설사연구』(김춘택,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등의 개별 연구 성과의 축적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 ‘77년판’, 219쪽.

19) ‘신간’ 2권, 61쪽, 68쪽.

20) 북한의 고소설 연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효현, 앞의 논문과 최웅권,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지식산업사, 2000),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족적 자주성의 강화라는 현실적 요구가 결과적으로 과거 유산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학사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 양상으로 지목할 수 있다.

특히 문학사 서술과 관련하여 ‘유산’에 대한 변화된 지침은 그간 고민거리였던 사대부계층인 한문학 작가의 처리 문제에 일정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조선문학사』에서 이전과 두드러진 구성상 차이점이 주요 작가·작품을 독립된 장으로 서술한 점이다. 대상 작가로는 앞의 표에 보인 정철을 비롯하여 이규보, 김시습, 임제, 박인로, 권필, 윤선도, 허균, 김만중, 박지원 등인데, 해당 작가의 작품을 넓게 수용하고 내용 뿐 아니라 형식적 특성까지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대부계급에 속하는데, 대부분 앞서 살펴본 『주체문학론』에서 김정일이 직접 거명한 작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서술은 비록 ‘사상적 제한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는 있지만, 생애와 문학 그리고 ‘미학적 견해’에 걸쳐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측면을 적극 부각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sup>21)</sup> ‘사상적 제한성’이라는 것도 이들 작가·작품을 극구 찬양한 다음, 대개 그 말미에 사족처럼 일률적으로 붙이고 있어 객관성이 희박한 궁여지책의 구색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대표적인 조선후기 한문학담당층인 실학파문학에 대한 서술 태도를 보면, ‘77년판’에서는 실학파의 미학적 견해가 지닌 계급적·역사적 제한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실학사상을 옳게 평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전개한 리론이란 봉건적유교사상에 기초하여 사대주의를 반대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실학자들이 주장한 미학적견해도 실학사상일반과 마찬가지로 많은 진보적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비과학적인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불철저성을 면할수 없었다. 실학자들은 남의것을 자꾸 모방하지 말고 자기 나라의 현실을 묘사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면서도 그 러자면 결국 옛것에 전혀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거할수 있는 옛것의 본보기란 공자, 맹자의 《도》이며 남의 나라 이름있는 옛 작가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그들자신도 그

21) 이규보의 경우는 ‘77년판’에서는 계급성에 기인한 ‘본질적인 약점과 제한성’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 있으나 ‘신간’에서는 찬사 일변도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적 철학자이며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러한 이른바 《옛것》에 의거하였고 《옛것》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sup>22)</sup>

그러나 『조선문학사』에서는 실학과 전반에 대한 이러한 신랄한 비판은 사그라들고 대신 박치원 장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소설작품들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나 구성조직에서 혁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에서 유교적개념과 고사들을 적지않게 쓰고 있고 특히 근대소설의 주요특징으로 되는 세부묘사의 구체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연암의 사상과 예술은 이 시기 우리 나라 선진사상과 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지표로 되었으며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로 연암의 문학은 우리 나라 사실주의발전의 새 단계를 열어놓은 귀중한 민족문화의 재부이다.<sup>23)</sup>

결국 『조선문학사』에 이르러서 실학과 비판은 ‘미학적 견해’나 ‘주제사상’의 차원에서 세부묘사와 표현의 차원으로 전락하면서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77년판’에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이익, 홍대용,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신유한, 신광수, 홍양호 등을 포괄하여 실학과의 문예관과 문학을 독립된 장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다.

종전의 문학사와 변별되는 『조선문학사』의 이러한 특징들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바 90년대 ‘주체문학론’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문학사 서술 군데군데 삽입된 김정일의 교시 내용(시조와 고려가요의 형식 평가, 내용과 형식의 탐구, 민족문화예술의 계승, 실학과작가, 최치원, 이규보, 김시습, 정철, 허균, 김만중 등의 작가와 작품,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을 비롯한 작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발굴 소개 등이 대부분 ‘유산과 전통’의 인용이고, 또 그것이 그대로 구현된 것이다.

22) ‘77년판’, 526쪽.

23) ‘신간’ 5권, 255쪽.

## IV. 맺음말

1990년대에 표면화된 『주체문학론』은 전체적으로 보아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무기'라는 점에서는 이전 시기 북한 문예이론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아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려 하는 입장 표명은 새로운 변화로 주목받아 마땅하다. 단적으로, 『주체문학론』의 규율하에 탄생한 『조선문학사』의 서술 양상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체사상 확립 이후인 70년대 문학사와 비교해 두드러진 변화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주로 과거의 문학유산, 구체적으로는 은일시가(강호시가), 실학과 등 특히 비판의 대상이었던 한문학담당층 사대부문학의 재평가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90년대 북한이 처한 현실의 타개책으로서 대두된 민족자주성 강화라는 명제와 엄연한 민족문화유산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문학사에서 배제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만나서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이념적으로는 경직되고, 때론 당의 지침과 서술원칙 그리고 실제 서술 사이에 다소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지만, 문학사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비록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엄존하지만 1990년대 북한문학사에 이르러 적어도 고전문학 분야에서 남북한의 연구 접점은 훨씬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남북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고전작가층이 이제 한문학담당층 일 반으로 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공동의 논의를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북한문학사, 고전문학, 서술 양상, 주체문학론, 주석적 서술, 문화유산

## 참고문헌

### 문학사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영인).
- 정홍교, 『조선문학사(원시~9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1(박이정 영인).
- \_\_\_\_\_, 『조선문학사(10~14세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박이정 영인).
- 김하명, 『조선문학사(15~16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1(박이정 영인).
- \_\_\_\_\_,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박이정 영인).
- \_\_\_\_\_, 『조선문학사(18세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박이정 영인).
- 리해산, 『조선한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199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2·3』(제3판), 지식산업사, 1994.

### 논저

- 김대행, 『남북한 국문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  
회, 1995.
- \_\_\_\_\_, 『북한의 문학사 연구-문학의 역사를 보는 시각』, 『시와 문학의 탐구』,  
역락, 1999.
- 김승찬, 『조선족의 우리 고전문학사 기술태도와 그 비판』,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_\_\_\_\_, 『북한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우리나라 고전소  
설사』, 한길사, 1993).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 박현균 편, 『조선고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조선고전문학연  
구』, 한국문화사 영인, 1995).
- 설성경, 『남북한 문학사의 비교』, 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

사, 1996.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심경호, 『북한의 고전문학연구, 성과와 문제점』, 지교헌 외,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철학종교·어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강욱, 『북한문학사의 실증적 오류 및 문제점 검토』, 『한길문학』~통권4호, 1990. 8.

이복규, 『북한의 문학사 서술 양상』, 『국제어문』~9·10합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89.

임완혁, 『‘역용패설류 양식’에 대한 북한에서의 연구 동향-북한의 문학사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제12집, 대동한문학회, 2000.

장효현, 『남북한 고전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최웅권, 『북한의 고전소설 연구』, 지식산업사, 2000.

홍용희,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화성』, 김재홍·홍용희 편, 『그날이 오늘이라면』, 청동거울, 1999.

황패강, 『남북 문학사의 과제』, 『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실제』, 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Abstract>

## The Aspects of Description of Classical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An, Young-Hoon

In this thesis, I studied on The Aspects of Description of Classical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North Korea, it is common that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written by groups of scholars not by individuals. That's because the policy of the Labor Party has an affect on its writing. The description of the classical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also influenced by the direction of policy.

Volumes one to six of The History of Choson Literature published in the 1990's deals with the classical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Choson Literature the objects of describing have been more widened compared to the histories of literature published in an early stage. This is attributed to Kim Jong-II's The Theory of Chuche Literature insisting on the wide succession to the legacy of national culture. In th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the objects have been depicted more widely.

This shows that in North Korea the study on th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has been advanced well. Also we need correct understanding and analysis about culture differen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Aspects of description, The Theory of Chuche Literature, Commentary description, Cultural heritage.